

하나된 아시아

가을의 초입,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즐기고 배우는 아시아인의 문화축제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진)과 아시아문화원(ACI 원장 이기표)은 8일부터 24일까지 '2021아시아문화주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친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위로와 회복을 기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아시아문화주간은 주제는 '공감, 아시아'. 공연과 전시, 포럼, 교육, 체험행사 등 12개의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8일은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아시아 문화를 소재로 한 공연 3편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이야기와 아시아 이주서사를 소재로 제작한 공연 '나는 고려인이다'가 극장 2 무대에 오르며 심봉사의 관점에서 '삼청전'을 재해석한 공연 '두 개의 눈'은 9일까지 극장 1에서 감상할 수 있다. 시민 참여형 공연인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아시아문화주간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극장 1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담은 꿈의 무대를 펼친다.

아시아문화의 다양성을 동시대적 관점에서 표현한 전시도 열린다. ACC 문화창조원과 야외공간에서 '친애하는 빅 브라더: 다시는 결코 혼자일 수 없음에 대하여', '지구의 기억', '2021 광주



우리나라 이야기와 아시아 이주서사를 소재로 한 공연 '나는 고려인이다' 장면. <ACC 제공>

ACC '2021 아시아 문화주간' 8~24일, 공연·전시·포럼·체험 시민오케스트라·미디어아트 등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대전환의 서막', '감각정원: 밤이 내리면, 빛이 오르고' 등 예술과 기술 융합전시와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전시가 펼쳐진다.

'K컬처와 아시아의 청년'을 주제로 한 '아시아 문화포럼'은 오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세계적인 대중문화의 흐름에서 문화사적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K컬처의 가능성과 명암, 사회적 쟁점을 살피는 자리다.

아시아 각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행사도 준비했다. 광주·전남지역 아시아 이주민과 유학생 등이 참여하는 '2021 아시아문화마당'이 8·9일 이틀 동안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아시아 음식과 놀이문화를 경험하고 아시아 전통 춤과 노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ACC 인문강좌는 '행복의 조건: 우리 곁의 나르시시스트'를 화두를 들고 오는 13일 문화정보원 극장 3으로 시민을 찾아온다. 정유정 작가의 신작 소설 '완전한 행복'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사유해보는 시간이다. 문화예술·인문학·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서서 'ACC 시민아카데미'도 운영,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온라인 채널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1-4070.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주목! 영화화

광주극장, 영화제 수상작 상영

광주극장이 부산국제영화제, 미장센단편영화제 등 영화제 수상작들을 선보인다.

광주극장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기욤 브라 감독의 영화 '다함께 여름'을 비롯해 셀린 시아마 감독의 신작 '쁘띠 마방',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를 부탁해' 등 6편을 상영한다.

8일 개봉하는 '다함께 여름'은 하룻밤을 보낸 여자를 잊지 못해 그녀가 있는 남프랑스 휴양지로 친구와 함께 무작정 찾아간 펠릭스의 이야기를 그린다.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에 초청됐으며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영화 '쁘띠 마방' (8일)은 셀린 시아마 감독의 신작으로 8살 소녀 넬리가 외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엄마의 고향 집에 머무르며 친구 마리오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마법 같은 시간을 보여준다.



'고양이를 부탁해'



'쁘띠 마방'

'물고기' (2013), '혼자' (2016)에 이은 박흥민 감독의 세번째 장편영화 '그대 너머에'는 8·10·11일 3회 특별상영한다. 서로의 기억 너머, 존재의 의미를 찾는 히치하이커들의 사투를 그린다.

20년만에 4K 리마스터링으로 재개봉하는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는 13일 만날 수 있다. 자유로운 고양이를 담은 스무 살의 다섯 친구들이 야생이라는 사회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꿈에 대한 고민과 갈등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2001년 개봉 당시 스무 살의 청춘을 현실적으로 그려내 관객들에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사랑을 받았다.

이밖에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노회찬6411' (14일)과 미장센단편영화제 최우수상을 받은 남궁선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 '십 개월의 미래' (14일)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식들을 빼앗긴 아버지 니콜라가 가족을 되찾기 위해 300km 떨어진 수도까지 떠나는 여정을 담은 '아버지의 길'도 함께 상영하며, 12일 오후 7시 '박강아름 결혼하다' 상영 후에는 박강아름 감독 등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정위상무 작 'Technofossil - Still Life #2'

예술의 섬, 여수 장도에서 미술축제가 열린다.

전남문화재단이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블루아트페스타'다.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되는 등 풍부한 해양 생태 자원을 갖고 있는 전남의 미래 비전을 예술과 접목시킨 기획이다.

문재선 예술감독이 기획한 이번 행사의 주제는 '후빙기의 섬:생물감시'. '생물감시'는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모든 위해요소와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통합, 해석해 모든 대응 단계에서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돕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장도 전시장을 중심으로 열린다. 주제전에는 박신애·박설마·박성우·박일정·이기일·정기현·정서연·정위상무작가 등 8명의 작가가 참여해 생태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박일정 작가는 게, 망둥어 등 다양한 생명체들을 소재로 활용해 섬과 육지, 갯벌과 섬,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희망의 다리를 묘사한 '섬-무지개(개)다리'를 선보이며 박신애 작가는 파리 열매를

예술섬 미술제

여수 장도서 '블루아트페스타'

15~19일, 박신애 등 8명 참여

'섬' 주제 커뮤니티 아트 전시

25일부터 VR 비대면 서비스

형상화해 인연의 굴레에 관한 생명 이미지와 인류를 품은 자연 이미지를 조형화했다. 정기현 작가는 물, 식물 등 자연물을 활용해 기후 또는 사회적 환경에서 작용하는 현상들을 생태미술적으로 은유화한 'Laboratory-anomaly point +4℃'를 선보인다.

특별전에서는 '일공공요·최수란, 조문경'팀이 신안 도서지역 아이들 130여명과 함께 '섬'을 주제로 제작한 '커뮤니티 아트'를 전시한다.

개막일인 15일에는 세미나와 공연이 열린다. 오후 1시에는 윤진섭 미술평론가, 최두수 유니온아트페어 예술감독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세미나 '현대미술의 개방, 남도의 초기역성'이 열린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정소희 무용가와 이해란 피아니스트의 '즉흥재'가 개막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코로나로 일부 행사는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지만 25일부터는 비대면 서비스로 즐길 수 있다.

'남도 사이버 갤러리' 홈페이지에 VR 미술관을 구축, 전시 현장을 재현하고, 3D 아카이빙을 통한 실감형 전시공간 투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BTS 리더 RM, 전남도립미술관 '이건희컬렉션' 관람

'미술관 투어'로 유명한 방탄소년단(BTS)의 RM(본명 김남준·사진)이 최근 전남도립미술관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RM은 지난 5일 BTS 공식 트위터에 전남도립미술관 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평소 미술 애호가로 알려진 그는 전국 방방곡곡의 미술관을 찾아다니는 '전시장 투어'를 하며 김환기, 유영국 화백의 작품을 관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전남도립미술관 방문 또한 9월 1일부터 진행 중인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전을 관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RM이 전남도립미술관에 다녀갔구나", "남준이 언제 왔다 갔어" 등 예상치 못한 소식에 놀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전남도립미술관이 고(故)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장품 21점을 기증받아 구성한 특별전에는 김환기·전경자·오지호 등 전남 출신 거장들의 작품과



유영국·박대성·김은호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총 19점이 전시 중이다. 전국적인 '이건희 컬렉션' 열풍 속에 전시 개막 첫 주말에만 2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전시는 11월 7일까지 열리며,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넌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